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9호 【루게 제25067호】 주제104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오금철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군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작전적구상에 따라 조직된 군부대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그 어떤 어려운 전투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강철의 정예대로로 장성강화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을 따라온



부대강화의 자랑스런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군부대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사와 그 판철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료해하시면서 아직도 할 일이 정말 많

다고, 앞으로 부대당위원회가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철저히 판철하기 위한 사업을 부대사업의 중심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항별로 하나하나 드림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장군님을 닮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협준한 산악도 진평도 단숨에 날아넘는 뿔뿔나는 일당백의 싸움군,

과 전투조법들을 연구하고 숙련할수 있게 작전연구실, 군사사학실, 종합훈련실을 잘 꾸리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부대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는 문제, 작전방안을 수정보충하는 문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비롯한 장비들을 더욱 현대화하며 경성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는 문제, 훈련을 현대전의 양상과 현실조건에 맞게 조직진행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도서실과 군인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도서실에 필독도서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 함께 군인들속에서 책읽기와 감상문 쓰기, 시쓰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을 다재다능한 지식을 소유한 팔방미인으로 키워냄으로써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

이 그대로 혁명대학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운영을 잘할때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모든 군인들을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식당과 일일창고, 공창고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농노사를 비롯한 올해 부업실태를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지휘관들은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군인들의 식탁에 올려놓기 위해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농노사와 온실남새농사, 축산을 더 잘하는 것과 함께 수산부업기지도 튼튼히 꾸림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며 태양빛 전지와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하여 군인들의 생활상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군인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잘하는것은 싸움준비완성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후방사업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자각을 안고 이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식당과 일일창고, 공창고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이곳 군부대에 와보니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대편리를 일상적으로 잘하고있는것이 한눈에 알린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전군의 본보기부대가 정말 다르다고, 정이 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주변산들을 뒤덮고있는 울창한 수림을 보시고 나무가 많은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

면서 군부대에서 자체양묘장을 더 잘 꾸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에 쌓인경과 자동보충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만세!》의 환호성을 리쳐올리고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의 군인들은 무척의 담력과 지략을 안겨주시고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환율이 그대로 생세, 방패가 되어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시였다.

본사정치지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동지께서 라선시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창건기념일전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새 집들을 마련해준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감사사를 주시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라선시 선봉자회를 찾으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새집들이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시고 모든 살림집들을 인민들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보금자리로 건설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기적하시면서 이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충성의 마음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닌 조선인민군인이 창조할수 있는 전파위부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쿠바의 프렌카 라피나통신, 민주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힐란드판게제어언어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 판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소식도 게재하였다.

민주공고, 도이힐란드의 인터넷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과 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정성제약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보여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의약품개발생산에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성제약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회주의의견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힐란드판게제어언어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 팔신문 《아르 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장광삼림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도이힐란드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네 팔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들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민스크

벨라루씨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각하

나는 당신이 벨라루씨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지된것과 관련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씨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에 맞게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4(2015)년 10월 13일 평양

양카라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 레세프 타이프 에르도간각하

나는 양카라에서 테러공격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귀국정부에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재확인하면서 귀국인민이 하루빨리 피해 후과를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4(2015)년 10월 13일 평양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성한 모자이크벽화를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래양상과 영상을 형성한 모자이크벽화를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순천철도분국 신순천역, 문덕군, 속천군 사산농장에 모시였다. 모자이크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인회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인회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 정중히 모셔졌다. 기업소에는 주제적화확공업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기 위하여 애국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탁월히 아로새겨져 있다.

순천철도분국 신순천역에 모셔진 모자이크화 《연세나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는 한평생 인민행렬자를 띠시고

조국의 통일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 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혁명영애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은 품소 당시의 순천역에 모시어 역사를 잘 꾸리려고 모든 종업원들이 인민의 총복달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밀고 힘찬 포진길을 걸고걸으며 인민사랑의 위대한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절세위인들께서 품은 품소 당시의 순천역에 모시어 역사를 잘 꾸리려고 모든 종업원들이 인민의 총복달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역사업을

데양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제적 래양으로 원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일관단시 당의 명도를 충성되게 받들어갈 한마음으로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들이 해당 단위에서 진행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토론회

핀란드에서는 주제사상연구기관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끼에체를 비롯한 여러 인사가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사상연구기관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끼에체를 비롯한 여러 인사가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일성주제적 70년전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을 위대한 주제사상을 조선혁명과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길을 열어준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주제사상을 깊이 연구 학습하는 신봉자들이 있어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제적 창시하시고 김정일부호시각하께서 발전통부화시키신 인민대중중심의 주제사상이 있어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박들과 온갖 곤란을 이겨내며 조선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할수 있었다고 그들은 확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고 【조선중앙통신】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군시대의 청년대기념으로 훌륭히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언설에서 청년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백두청춘들이 발휘한 청년돌격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시련과 난관을 물리치며 애국충정의 의제, 사상과 신념의 연계를 쌓아올려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한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정신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이다.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조이박고 단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곧바로의 정신이다. 당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응답하여나서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다. 청춘시절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절이다. 남달리 희망과 포부도 크고 꿈도 많은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인생에 다시 없을 청춘시절을 당이 부르는 초소에서 가장 값있게 빛내야 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목표이고 지향이다. 세상에는 청년들이 많고많은데 우리 청년들처럼 당의 평등을 생명의 소리로 여기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청춘의 보람과 영예를 찾은 그런 청년들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드넓은 신념과 의지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지난 4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대지에서 인생의 첫출발을 때고 살을 에이는 북방의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발전소를 건설해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떠나고 싶었는데 멀어지는 시기로 말라도 백두청춘들의 심정에 하나로 고통친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신이고 사랑의 첫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세운기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였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째로 맡겨주고 걸음걸음 손잡이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평등은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발케 떨치게 한 자랑말이었다. 당을 따라 곧바로, 이것은 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변할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돌격정신이고 인생의 좌표이다.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작렬하는 폭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한 공격정신이다. 혁명적기백과 열정은 청춘의 상징이다.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무대인 청년들의 삶의 보람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데 있다. 조국경사에 이르러서서 영웅적인 걸림마대에 당에서 청춘을 불러들여 무한한 자원을 빛내인 우리 청년들의 투쟁정신이 깃들었다.

당의 평등은 우리 청년들에게 단숨에 산도 떠돌고 바다도 매를 당락고 용맹을 안겨주는 원동력이다.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므로 원수님께서 돌격대원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로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화약에 불이 달린것과 같은 가슴에 드세한 공격정신으로 세상에 없는 영웅선화를 창조하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심장같이 새기고 발전소건설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 장소에 이루어 주라는 높이에서 무조건 끝내고야 할것이다. 당이 돌격대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였다. 용감한 돌격력과 질풍같은 속도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일천하를 벌여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 동안에 해체하고 발전소를 완공한것은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힘아찔처럼 강직한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물불을 가리랏, 당의 부름에!》, 이것은 백두청춘들의 심장에서 분출되는 애국충정의 휘몰아치는 불꽃이다.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현인할수 없는 약조전에서도 동지적우애와 집단의 위력으로 곤난을 뚫고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단결은 곧 힘이며 승리이다. 우리의 단결은 승승하고 단결이기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단결이며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힘의 원천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었다. 일찍한 자연의 광만을 이겨내야 하는 가장 극악한 조건앞서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고동친것은 자체의 힘으로 기어 올려야 한다는 사생결단의 각오였으며 그 바람에 놓인것이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청년돌격정신이었다. 돌격대원들은 모두가 생사유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전우, 동지가 되어 서로 돕고 이끌어 합마와 정대에 천천안정신을 깨고 산을 들어내면서 연계를 쌓고 물결같은 한치한치 떨어내갔으며 강추위에 운반수단마저 없어보이면 어깨걸고 썰매를, 발구건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갔다.

발전소건설의 나날은 돌격대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역세게 키운 나날이었으며 혁명적투쟁에 기초한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한 나날이었다. 우리 나라 청년돌격대역사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근로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원정철소대는 동지들을 위하여 목숨도 사슴없이 바치고 쓰러지면서도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낸 청년돌격대원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은 우리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된 주제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시대의 영웅, 창조된 청년들로 자라나게 한 근본 원천이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체질화하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주인공들답게 공사대상이었다. 일찍한 자연의 광만을 이겨내야 하는 가장 극악한 조건앞서 돌격대원들의

조 학 철

경에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촌에서 전향단위를 창조하고 모든 단위들이 전형점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여름철에 각지 농촌에서는 도를사이, 시, 군들사이, 협동농장사이의 풀베기사회주의경쟁과 함께 단거리풀베기경기가 진행되었다.

해마다 진행된 풀베기경쟁이 있지만 우리가 농근명중양위원회 일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느낀것은 올해에는 종전과 달리 새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었다.

풀베기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 단거리풀베기경기를 특색있게 조직한 것이다. 우선 선수선발을 새롭게 하였다.

각 도에서는 당의 평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농장을 하나씩 선정하고 농장에서는 20명의 농근근로자들을 선수로 내세웠다. 즉 경기는 각 도의 11개 농장에 선발된 220명의 농근근로자들이 참가하였는데 선수들의 실적이야 농장실적이 그것이고 풀베기경실적이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하여 각지 농근근로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경기방식도 새로웠다. 농근근로자 한사람당 하루 3회의 풀베기과제를 제기하고 중앙과 도농근방, 농부농민 일꾼들이 도를 넘여야만 완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풀베기경기를 종전과 달리 조직적으로 리유에 대하여 농근명중양위원회 일꾼은 이렇게 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

하였다. 《당장전 70일이 되는 뜻있는 올해의 풀베기경기는 거름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농촌에서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모든 단위들이 전형단위를 따라달라시키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농근부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풀베기전투에 불려일으키기 위한데서 전형적기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각 도의 풀베기총적인 실적을 놓고 계획수행물만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지대적특성이 각이한 조건에 맞게 공정하게 평가할수 없었다. 실례로 북부지방과 서해안지방의 도들에 대한 풀베기계획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하지만 그 단위들의 구체적인 실례를 다 반영한 계획이라고는 볼수 없었다.

올해의 풀베기경기는 이런 편향을 바로잡도록 새롭게 조직하였다. 즉 각 도에서는 풀베기조건이 유리하다로 생각되는 지대를 차례로 선정하여 함으로써 비슷한 조건에서 경기를 진행하여 농근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크게 높일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농근근로자들의 능력을 제점도까지 위해서였다. 종전에는 농근근로자 한사람당 하루평균 풀베기량이 300여kg정도로 하였다. 이것은 실지지역을 높이기 위한데서 큰 도

움이 못되었다. 따라서 이번 경기를 통하여 농근근로자들의 풀베기정량을 다시 정하고 더 높은 풀베기생산목표를 세움으로써 지역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과 의의로부터 농근명중양위원회에서는 풀베기사회주의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은파군 농근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을 양동북화물협동농장에서 진행하고 이에 응하여 풀베기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도에서 선발된 농근근로자들의 풀베기경기를 조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도, 시, 군 농근명중양위원회에서 시, 군들사이, 협동농장사이의 풀베기경기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자기 단위와 대항하여 풀베기경쟁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풀베기경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풀베기경쟁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우선 도들에서 농근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기대 제1선상호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열의와 농근근로자들의 풀베기경기를 성취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간것

이었다. 함경남도에서는 일꾼들을 풀베기경쟁소인 덕성군 직동협동농장에 내려보내어 당조직의 지도밑에 풀베기경기에 참가할 대내러가 풀베기를 책임적으로 선발하고 전투현장에 뛰어들기, 구호, 표어, 포전방송등을 전개하여 경기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였던 전정로병과의 상봉모임을 주관하고 대회기간에 풀베기경기를 주관하였다. 이것이 농근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그들은 1950년대 조국수호전쟁으로 이번 풀베기경에서 높은 실적을 벌 부리는 열의와 열정에 감동하여 풀베기경기를 풀베기경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풀베기경쟁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도에서 선발된 농근근로자들의 풀베기경기를 조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도, 시, 군 농근명중양위원회에서 시, 군들사이, 협동농장사이의 풀베기경기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자기 단위와 대항하여 풀베기경쟁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풀베기경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풀베기경쟁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우선 도들에서 농근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기대 제1선상호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열의와 농근근로자들의 풀베기경기를 성취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간것

으로 오늘의 풀베기전투에서 영예로운 승자가 되고 농근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지원물자로 그들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조선군, 창도군, 강릉군당백 일꾼들도 경기참가자들속에서 발휘된 집단적적성자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 모든 농근근로자들이 풀베기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이번 도들사이 풀베기경기 과정에 농근부부 일꾼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이번 풀베기경기는 비록 힘겨운 전투였으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니 힘이 저절로 솟아났다.》, 《풀베기경기에 높이 발휘된 정신력으로 일해나간다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대공작을 이룩할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란 어떤 정신인가를 이번 풀베기경기를 통해 더욱 잘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말씀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깊이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번 생산경기를 해마다 조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반영열이 제기되었다.

참으로 이번 풀베기경기는 농근부부 일꾼들과 농근근로자들이 사상정신적으로 각성되고 당정책관철을 대담하게 실천할수 있는 열의와 열정을 보여준다는 진리를 다시금 뼈에 새긴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년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은천고지생산사업소에서

이와 더불어 농근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크게 높일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농근근로자들의 능력을 제점도까지 위해서였다. 종전에는 농근근로자 한사람당 하루평균 풀베기량이 300여kg정도로 하였다. 이것은 실지지역을 높이기 위한데서 큰 도

움이 못되었다. 따라서 이번 경기를 통하여 농근근로자들의 풀베기정량을 다시 정하고 더 높은 풀베기생산목표를 세움으로써 지역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과 의의로부터 농근명중양위원회에서는 풀베기사회주의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은파군 농근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을 양동북화물협동농장에서 진행하고 이에 응하여 풀베기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도에서 선발된 농근근로자들의 풀베기경기를 조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도, 시, 군 농근명중양위원회에서 시, 군들사이, 협동농장사이의 풀베기경기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자기 단위와 대항하여 풀베기경쟁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풀베기경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풀베기경쟁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우선 도들에서 농근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기대 제1선상호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열의와 농근근로자들의 풀베기경기를 성취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간것

를 책임적으로 하여 누에의 자라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그들은 누에실을 놓아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모든 누에들이 일찍은 고치를 틀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소인의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누에치기의 모든 작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한 결과 누에고지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덕천작업반의 장성일, 리향실 등들은 올해 600kg이상의 누에고치를 생산함으로써 사업소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는 영예를 지니었다.

매화, 정중, 초정작업반 등 많은 작업반들에서도 혁신자태를 높여냈다. 사업소에서는 년간계획을 완수한 자랑과 10월의 대추전을 맞이한 기쁨으로 단거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활 철 민



당의 김지농사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무부루스감자종자생산에 큰 힘을 쏟고있다.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감자조직배양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중앙정보통신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중앙정보통신국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14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광철비서, 관계부서, 중앙정보통신국 일꾼들, 중앙일꾼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중앙정보통신국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나라 전체 인민이 당장전 일꾼들을 승려자의 대추전으로, 혁명적대장사로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민족적경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을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창립 일꾼들을 비롯한 중앙정보통신국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중앙정보통신국은 배두산건설사업단원들의 불멸의 열의와 열정을 잇는 영광의 사적단위이며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체신기관이라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 중앙정보통신국을 조직하여주시고 나아가 방화방도방도를 완히 밝혀주시였으며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과 인민들의 편보장에 적극 이바지하는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체신기관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

그와 함께 농장원들이 일을 끝내면 탈곡기정비를 잘하도록 요구수고도 높이고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하고있는 분조들을 적극 내세우는것과 함께 총화사업도 엄격하게 진행되고있다.

결과 모든 분조들에서 교대전에 탈곡기정비를 철저히 하는 기풍이 서고있다. 당의 원들은 기대의 구수구수를 살피면서 미흡한데가 있으면서 정비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본사기자

떨감문제해결에서 커다란 혁신

시 중 군 에서

얼만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87인민반에서 사계춘 붕붕무의 밑에 의하면 세기의 남을 짓는데 드는 알탄은 2kg정도이고 그보다 3배정도 때면 밭까지 덮힐수 있다고 한다. 더우기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아 좋다 고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군의 모든 단위들에 적극 일반화하기로 하였다.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병원, 려단 등 군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성형한 고무기어울고 알탄을 생산하여 밭갈이를 위하여 생산하고있다. 밭도 깊고 밭도 덮히고 재는 비료로 쓸수 있어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애국풀》을 수확할 때에는 평평한 1.5cm정도 솟부분에서 세며야 풀의 재생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소, 양, 말과 같이 큰집질승마의 경우 알탄은 키가 120~170cm 될 때 베어 리용하며 토끼, 닭, 오리와 같이 작은 집질승마는 목고기로 리용할 때에는 80~120cm 될 때 베어 리용한다. 종자생산조건에서는 한면이상 제다

교대전 기대정비를 짜고들어

명진고고성립협동농장의 난달릴기실적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비결은 교대전 탈곡기정비를 잘 짜고는데 있다.

농장에서는 이미 난달릴기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하지만 농장일꾼들은 만족하지 않고 탈곡기를 만가공시키기 위해 사색하며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 교대전 탈곡기정비를 잘하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탈곡기

들을 만가공시켜 난달릴기속도를 높이는데서 이것은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였다. 이로부터 농장에서는 분조들에서 난달릴기교대전에 탈곡기정비를 잘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일꾼들은 분조별로 나가 기계공들이 설비점검을 주임담당과 간지계 하도록 교양사업을 짜고있는 한편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 연일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어나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10월의 명절을 백두산대국의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천만군민의 기쁨과 환희를 더해 주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이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존엄높은 불패의 당을 우리더따르는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은 총정의 송가,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공연장소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온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다.

참신하고 기백있는 음악예술 활동으로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제일나팔수들인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객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외국인, 해외동포들로 하여 공연장소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남을 따라 높아지는 관람객기

속에 첫 공연이 진행된 때부터 불과 며칠사이로 관람객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어머니생일》, 남성합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 《조선의 진군가》, 《조선의 모습》, 기악과 노래 《사랑하노라》,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녀성중창 《보란듯이》 등 다채로운 종류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주체혁명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선군혁명의 전투적참모부로서 강화발전시키시어 이 땅위에 세기적번영과 강성민영의 기적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예술적화곡으로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백두의 천출위인들의 위대성을 실감으로 절감하면서 관람자들은 오직 당을 믿고 당과 함께 역사의 광풍을 헤치며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성스러운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이 있기에 인민의 진정한 삶도 행복도 미래도 있다는 철리를 새겨주며 무대에 경음악과 노래연주 《조선로동당 만세》, 남성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 찬가》, 남성독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등의 종류들이 울렸다.

주체의 붉은 당기표에 근로인민대중의 모습을 존엄높이 새겨 주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억세게 이끌어주는 향도의 우리 당을 우러러 이 세상 제일 큰 영광과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고 싶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정의 불출인양 장쾌한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언제나 인민을 당의 돌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내세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운명의 하늘로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은 모란봉악단의 녀성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별고 싶었습니다》, 녀성2중창과 방창 《그리움은 나의 행복》, 녀성독창 《운명의 손길》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은 나라 인민모두의 운명이 고 미래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내게 완성하고 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는 공연은 공훈국가합창단의 남성5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우리 조국을 이끄시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대강국의 위용을 높이 펼쳐주시며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서리지 관람자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퍼쳐올리었다.

녀성중창 《우리 당 영원히 따

르리》, 관현악과 노래 《영원히 한길은 가리라》, 혼성중창과 합창 《오늘도 레인도 영원히》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시련의 모진 광풍이 불어오고 천만신앙막아선대도 오직 당을 따라 혁

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 나갈 철석의 맹세를 굳게 가다 들었다.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로 울리고 당

을 따라 대를 이어 총정다해갈 인민의 일원단심이 로동당만세의 함창으로 메아리치는 공연은 관람객들의 대결진속에 계속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 헌법심의위원회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5일 때에 하짜누딘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 헌법심의위원회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세계자주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위업수행에

싸우아리신 거대한 공적과 위인적공로로 하여 인류의 심장속에 영성하시려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림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흔들에서 그들

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 헌법심의위원회대표단 주체사상탑 참관

때에 하짜누딘 위대한 수령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 헌법심의위원회대표단이 15일 면서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으며 람전당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감상할때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가이아나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박상을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8일 데이비드 아예 그랜저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데이비드 아예 그랜저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어 반세, 사회주의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끄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폐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8일에 개막되었던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폐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 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진원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어난 수만상의 불멸의 꽃들로 황혼경을 펼친 전시회장은 참관자들이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폐막식이 15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에서 진행되었다.

용진 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장, 태양의 꽃을 전시킨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조선인측단,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중조선인총련합회측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해외동포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폐막식은 시작되었다.

전시회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모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상장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 단체, 전시회에 기여한 단위들과 일꾼들, 모범적인 제배공물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수여되었다.

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신념과 의지,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불멸의 꽃들로 호모의 꽃보다, 경축의 꽃비라도 펼친 이번 전시회가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조선로동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세차게 차넘친 위인칭송, 위인홍모의 축전으로 길이 빛날것이라는 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실감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따라 우리 조국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불멸의 꽃들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 온 세상에 탄발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축전가》주악으로 폐막식은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높은 수확을 내는 온실오이재배방법

줄기에 마더가 있다. 마더가 땅에 닿으면 뿌리가 생긴다. 농장에서는 바로 줄기의 마더에서 뿌리가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생육기일을 연장시켜 오이 생산을 높였다. 즉 오이를 수확하면 줄기를 땅에 한두마디를 땅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주었다.

그러면 어느날 그들은 한가지 현상을 보게 되었다. 어느 한 오이포기의 줄기가 땅에 닿아있었는데 마더에서 뿌리가 생긴것이었다. 그 오이포기를 유심히 관찰해보니 다른 포기보다 푸르셨었다. 이 사실을 놓고 그들은 분석을 심화시켰다.

그들은 즉시 시험재배에 들어갔다. 먼저 온실의 온도를 맞추게 보장하면서 오이를 수확한 다음 줄기를 땅에 묻어

우리 나라 국가우주개발국 국제우주련맹에 가입

우리 나라 국가우주개발국의 국제우주련맹가입이 12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있는 국제우주련맹 제68차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 조위원장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방문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더모트 하드는 영국주체사상연구소 조위원장이 15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국가우주개발국 국제우주련맹에 가입

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1951년에 창설되었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65개 나라에서 우주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274개의 정부 및 민간조직들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국가우주개발국 국제우주련맹에 가입

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1951년에 창설되었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65개 나라에서 우주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274개의 정부 및 민간조직들을 망라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

쿠바국가사회 위원장과 감보자국왕,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축하하여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가 9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축하하여 감보자국왕 국왕 노르동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르동 모니니에트 시하누크가 8일 이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한 인사들로는 쿠바공화국 국왕 노르동 시하모니와 대왕후 노르동 모니니에트 시하누크가 8일 이

히 축하한다. 위대한 김일성각하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인민의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강위력한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는데서 당의 존재와 강위력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기에 조선로동당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베트남, 이란에서는 파당회가, 몽골에서는 경축연회가, 우간다에서는 우리 나라 사절단정부가 2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담은 사진전람회가 전시되였으며,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 오신 조선로동당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면되고 로속한,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혁명정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암살책동을 짓부시면서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경제장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될 수 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자랑찬 령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조국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쿠바, 베트남, 이란에서, 앙골라에서 경축연회, 우리 나라 도사 및 사절단정부가 2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사진전람회가 전시되였으며, 또한 배우신들, 학생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과 위대성 도서를 비롯하여 전시되였으며, 영화감상회에서는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대시령스키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만마사공회소련합시가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훌륭하게 꾸려주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조신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해나갈것이다.

성명, 담화 발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타이완의 만마사공회 성명 담화를 발표하였다.

타이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인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당으로 위용될 것이고,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대로 삼고 주체사상을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들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그 어떤 풍요도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전당의 통일단결에 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조선인민의 최고평등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나라의 존엄과 자존권을 수호하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진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를 쟁취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의 최고평등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나라의 존엄과 자존권을 수호하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진 인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를 쟁취해나가고있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는 김정은제1위원장의 정치철학

재미동포전국련합회홈페이지에 실린 글

13일 재미동포전국련합회홈페이지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칭송하는 글이 실렸다. 글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년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청년전위대의 화북행진이 성대히 진행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세계각지에서 온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경축행사를 직접 보았으며 전세계가 실황중계를 통하여 목격하였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평양의 김일성광장에는 김정은제1위원장의 두리에 통진 천만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당당하게 펼쳐졌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이 평양을 지켜온 참가자들과 세계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들여잡은 격정의 순간이었다고 글은 격찬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은 조선로동당창건 70년경축 연설을 시작하시자 전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숨을 죽였다고 하고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은 조선로동당창건 70년경축 연설을 시작하시자 전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숨을 죽였다고 하고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거부터 이인위인 즉 인민을 하는 처럼 변변했다고 하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오늘날 김정은제1위원장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갈것을 천명하시였다.

오직 인민을 위해 살아오신 김정은제1위원장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갈것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거부터 이인위인 즉 인민을 하는 처럼 변변했다고 하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오늘날 김정은제1위원장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갈것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거부터 이인위인 즉 인민을 하는 처럼 변변했다고 하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오늘날 김정은제1위원장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갈것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거부터 이인위인 즉 인민을 하는 처럼 변변했다고 하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오늘날 김정은제1위원장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갈것을 천명하시였다.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는 범죄자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는 언제까지도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레로문제에서의 대립은 무엇을 보여주는가